

이해찬(전 국무총리) 1차 구술

1. 구술자: 이해찬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29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광장
6. 구술분량: 03분 4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2년 14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일화

구술자 :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십일(91)년도 오(5)월에 처음으로 지방에 선거¹⁾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시의원 선거가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평민당²⁾ 사무총장 공천 심사하는 쪽에서 한 지역을 내 몰래 팔아먹었어요. 그러가지고 제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고 영뚱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로비를 했겠죠. 그게 이제 ‘철회해라 그건.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도 안 한 사람을 임의로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철회하라고 한 걸 그걸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날까지 철회안하면 내가 탈당을 하겠다.’ (철회가 안돼서) 탈당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아, 이런 정치 별 의미가 없겠구나. 뭐 저놈들은 삼(3)당 합당해서 지역구도 만들고 민주당³⁾은 민주당대로 제대로 된 지방의회 선거를 처음 하는 건데 그런 때 그런 공천이나 이렇게 팔아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정치를 안 할 생각으로 저는 이제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구선 미국 가서 한참 돌고 (91년) 팔(8)월인가, 팔(8)월 말에 돌아오는데 보니까 꼬마 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⁴⁾하고 합당⁵⁾한다는 뉴스가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더니 이제 통합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입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정치할 생각이 별로 없다. 입당을 안 하겠다. 정치를 임기만

1)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시·도의회(광역)의원선거를 말함.

2) 이때는 평화민주당과 재야단체인 신민주자유연합이 통합해 신민주연합당(신민당)으로 제출법한 시기였음.

3) 각주2)에서와 같이 신민당을 말함.

4) 각주2)에서와 같이 신민당을 말함.

5) 1991년 9월 이른바 ‘꼬마 민주당’과 신민당이 통합해 민주당으로 출범함. 이듬해인 1992년 14대 총선(3·24)이 이어짐.

끝내고 정치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 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자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의원회관 사무실로, 같은 현역의원이니까 그 당시까지는. 자꾸 사무실로 와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복당을 하겠다.’ 복당(復黨)이죠. 다시 복당을 하기로 했는데 복당을 하려니까 ‘사과문을 써라’ 뭐, 그러는 거예요 당에서. ‘내가 왜 사과문을 쓰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복당을 하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탈당을 했던 거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 까 복당을 한다는 건데 당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내가 사과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있었어요. 사과문을 안 쓰면 복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거 못 한다, 나하고 당하고 막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공천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면담자 : 총선 앞두고.

구술자 : 총선 앞두고 이제 공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이 무조건 복당시켜서 공천 안주면 자기가 탈당하겠다’ (고 한 거예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중적인 정치인이 돼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오(5)공 청문회 스타로 났지, 삼(3)당 합당 거부했지 그러니까 이미 영호남을 가릴 것 없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많이 가진 정치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다가 저도 이제 광주 청문회를 가지고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알려진, 저도 이제 대중 정치인이 돼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복당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담판을 진 거죠. 복당시켜서 공천 안주면 자기가 탈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해찬이는 복당을 해서 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거죠). 유명한 일화에요, 그게.

■ 구술자 주요이력

1952. 충남 청양 출생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6. 국민회의 총선거획단 단장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분부장
1997.12 - 1998.02 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